

사순절 네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4TH SUNDAY IN LENT

주후 2021년 3월 14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77 장 “예수 따라가며” (새 44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1 번 시편(Psalm) 28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Luke) 16:1-13	이윤선 집사
설 교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18) – 충성된 삶으로” (Gathering Together Again – by Faithful Living)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관심은 온통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되었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진실하지 못했으며, 우리의 삶은 세상의 유희와 죄악 가운데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 하옵소서. 진정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오니, 날마다 마음을 찢는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하지 않는 충성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후 5:1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한글개역 **눅 16:10**)

“Whoever can be trusted with very little can also be trusted with much, and whoever is dishonest with very little will also be dishonest with much.” (NIV **Luke 16:10**)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3/14 (주일)	3/15 (월)	3/16 (화)	3/17 (수)	3/18 (목)	3/19 (금)	3/20 (토)
	출25	출26	출27	출28	출29	출30	출31
본문	요4	요5	요6	요7	요8	요9	요10
	잠1	잠2	잠3	잠4	잠5	잠6	잠7
	고후13	갈1	갈2	갈3	갈4	갈5	갈6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3/17 오후7:30)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롬 8:28-34)
토요 새벽기도회 (3/20 오전6:30)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매” (시 30:1-12)

지난 주일(3/7)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17) – 단순한 삶으로” (골 3:12-17)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함을 지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삶은 (어떤) 선택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1)무엇이 더 중요한지? 2)무엇이 본질에 더 가까운 것인지? (그리고) 3)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를 분별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단순하면서도 중요하고? 단순하면서도 본질에 가까우며? (또한)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1)첫째 정리(整理)이며, 이는 우리 삶에 (다시금) 질서를 부여하여, 정작 중요한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2)둘째는 선택(選擇)과 집중(集中)으로서, 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셋째는 그리스도의 평강(平康)으로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조급함과 두려움과 불안함 중에도, 더욱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삶을 지속할 수 있으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이, 1)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정리(整理), 2)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선택(選擇)과 집중(集中), 그리고, 3)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平康)으로 인해,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